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인연

태평로

황대진

논설위원



작고한 정두언 전 의원은 정치를 그만두고 서울 마포에 일식당을 열었다. 여의도에서 멀지 않아 정치인들이 자주 찾았다. 단골 중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주로 정 전 의원과 경기고·서울대 동문이거나 같은 상임위를 한 인연 등으로 친했던 사람이었다. 가장 의외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대표가 된 정청래 의원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동 정씨라는 것 빼고는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같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할 때도 가깝게 지냈단 말은 듣지 못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그에게 정 전 의원과 무슨 인연이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공천 탈락 후 종편 방송에 같이 나가면서 친해졌다. 내 지역구인 마포에 식당을 열어 자주 온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정 전 의원을 ‘형’이라고 불렀다.

정 대표는 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웬지 싸늘하고 주변에 벽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학생운동을 할 때도, 국회의원이 돼서도 늘 초강경파로 꼽혔다. 대학 때는 주한 미국 대사 관저를 점거하고 방화를 시도해 징역

故 정두언 전 의원과 ‘절친’

“당 달라도 대화 되는 분” 추모

“野와 악수 않겠다”고만 말고

본인도 정 전 의원처럼 해보라

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됐다. 그런 모습은 4선 의원이 되고, 최고위원, 당대표가 돼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증오한 이명박 정부 탄생의 일등 공신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정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날 그 식당이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도 정 대표였다. 정 전 의원을 향한 정 대표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다. 당대표 경선에 한창이던 지난달 16일에도 정 전 의원 6 주기를 맞아 묘소를 찾았다. 문제인 전

대통령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비난했던 사람이 정 전 의원 기일은 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았다. 정 대표는 이날 “당은 달랐지만 대화가 되는 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해 주는 분, 그리고 매사에 솔직 담백했던 형님이 요즘 더 그립다”고 했다.

보름쯤 지나 그는 당대표가 됐다. 수락 연설에서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힘을 겨냥해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며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 묘소에서 눈시울을 붉히던 그 사람이 맞아 있었어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했다 국힘도 정 전 의원이 있던 때와 지금은 다르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여야가 모두 극단화됐다. 정 대표는 국정 운영에 ‘원팀’을 말했지만, 야당은 ‘다른(the other) 팀’이고 싸워야 할 적일 뿐이다.

정 대표에게 묻고 싶다. 그래도 한 번쯤은 국힘 의원들을 정 전 의원 대하듯 할 수는 없을까. ‘다른 팀’의 누군가가 정 대표를 떠올리며 “당은 달랐지만 대화가 되는 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해 주는 분’이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까. 당대표 하는 동안 그런 인연을 하나라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3]

금붕어에 매료된 마티스

유리 어항 속, 맑고 시원한 물살을 따라 금붕어 네 마리가 유영한다. 동그란 주둥이를 빼꼼이며, 까맣고 큰 눈을 하루 종일 동그랗게 뜨고서, 보드라운 지느러미를 하늘하늘 흔드는 금붕어를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아수과’의 대표 화가로 알려진 프랑스의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1869~1954)는 1912년 초, 모로코를 여행하다가 금붕어에 매료됐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금붕어를 바라보는 모로코인들에게 이끌렸다는 게 맞겠다. 마티스 눈에 비친 그들은 커피하우스에 모여 편안히 앉거나 앞드린 채 어항 속 금붕어를 하릴없이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 모습에는 불안도 조금함도 없고, 무료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국제적인 대도시 파리에서 온 마티스에게, 모로

코의 금붕어는 고요한 시선과 평화로운 호흡 속에서 명상과 안식을 누리는 ‘지상낙원’의 상징이 됐다. 거칠게 충돌하는 원색의 대비로 화면을 채우던 마티스의 ‘아수과’ 시기가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길지 않았고, 이후의 그는 오히려 맑고 투명한 색채의 향연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즐기는 순수한 사람들을 주로 그렸다.

마티스의 금붕어 연작 중 한 점인 이 그림은, 그가 실제로 자신의 스튜디오에 두었던 원통형 어항을 그린 것이다. 초록 풀과 분홍 꽃, 초록 의자와 분홍 탁자 가운데서 노니는 빨간 금붕어의 모습이 눈부시게 청량하다. 하지만 마티스가 이 그림을 구상한 시점은, 모로코가 프랑스 보호령으로 전락하던 해이기도 하다. 금붕어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앙리 마티스, 금붕어, 1912년, 캔버스에 유채, 146×97cm, 모스크바 푸시킨 미술관 소장.

하던 모로코인들은 어쩌면 그들의 현실 속에서 ‘금붕어 보기’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민주당 방송법’ 상정, 절대 권력 정권 일방 독주 시작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돼 본회의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취임 후 첫 본회의를 맞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논란 법안 중 방송법 우선 처리를 예고했는데 그대로 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8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우리 기업들은 물론 주한 외국 기업들도 “한국서 철수”를 거론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관세 협상의 부담을 지고 가야 할 우리 기업들이다. 방송법은 친여 성향 언론노조,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이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고 했다. 정당대회 때는 “국민의힘 위한 정당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협

확산되는 대주주 양도세 혼란, 대통령이 정리해야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지난 1일 일본·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약보합에 그쳤는데도 한국 증시만 4% 가까이 폭락한 원인으로 이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10억원 어치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증시를 탈출할 것이라 우려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를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번 개편안을 “증시 계엄령”으로 부르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 증권사는 노벨상 수상자의 경제 이론을 적용해 “지난 1일 시가총액 감소분(116조원)으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가 8조1000억원에 달해 1차 소비 쿠폰 예산과 동일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주가 폭락으로 소비 쿠폰 효과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은 나흘 만에 13만명 넘게

치는커녕 야당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입법 폭주와 방탄 입법을 거듭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결정한 경우가 120건에 이른다. 20대 7건, 21대 64건과는 비교도 안 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부분이 반기업 친노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정권을 잡았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고 공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차는 결국 어딘가에 충돌해 멈추게 된다. 속도가 높을수록 그 피해는 클 것이다.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보았다. 그런데 ‘부자 증세’라는 정치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가 1400만 투자자들의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표명이 없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가. 대주주 기준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끝나는 문제다. 투자자 혼선을 없애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가짜 뉴스 유투버 징벌, 김어준부터 적용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투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토해볼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불량 식품을 만드는 기업에 부당 이익의 몇 배를 징벌적으로 물리는 것처럼,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유투버들에게도 그런 배상금을 물려 가짜 뉴스를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 유투브에는 멸절한 사람을 사탕했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해 돈을 버는 유투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가짜 뉴스를 쏟아내며 돈을 벌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이 정치 가짜 뉴스다. 유투버가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동안 가짜 뉴스로 영향력을 키워 급진적 이익을 취한 유투버 상당수는 친민주당 성향이고 그 대표가 김어준씨다. 김씨는 친안한 좌초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창했다. 모두가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이것으로 돈을 벌었다. 비

상계업 직후에는 국회에서 정치인 암살조와 미군의 북폭 유도 의혹을 제기했다. 대부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명세를 키우고 정치적·급진적 이익을 취했다. 일부 우파 유투버들이 ‘김어준 모델’을 따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으로 따지면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등 각종 과담들에 동조·가담해왔다. 본인들도 과담인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후쿠시마 과담이 먹이지 않자 시위를 벌인 이후에 생선회를 먹고 ‘잘 먹었다’는 방문록을 남긴 사람들이었다. 친민주당 성향 유투버들은 이 과담들을 퍼 날랐다. 민주당은 이런 과담 유포에 대해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로 판명 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유투브의 당사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 공직에 임명됐다.

가짜 뉴스 유투버를 근절하려면 적용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 자기편 유투버의 가짜 뉴스는 조장하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유투버에게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면 가짜 뉴스가 더 범람하게 만들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말 유투버들의 가짜 뉴스 장사를 근절할 생각이 있어서 김어준씨에게 관련 제도를 우선 적용하면 모든 극단 유투버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작가 이문열, 재단 상임고문으로 동참

소비쿠폰 기부, 2주만에 벌써 10억 ... 《국민재단 빛 설립운동》 순풍 탔다

오늘의 《빛》→ 내일의 《빛》
각계각층 동참 줄 이어
변듯한 우파 재단 탄생 기대감



[편집자 주] 소비쿠폰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래세대의 빛을 소비한다는 게 편치 않다는 것이다. 신청 많은 게 최소한의 저항과 도리라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가운데, 쿠폰 받은 돈으로 《국민재단 빛》을 설립하자는 운동에 호응이 몰리고 있다. 빛을 밝으로 승화시키자는 것. 다음은 이 운동 주창자 도태우 변호사의 글.

《빛 권하는 사회와 그 적들》

나랏빛 두 배로 만든 문재인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소설 속 남편은 일제 시대 일본 유학을 하고도 일을 못 찾고 술로 세월을 보낸다. 기대를 접은 아내는 “그 똥을 사회가 왜 술을 권하고”라고 한탄한다.

신생아부터 100세 노인까지 15만, 18만, 25만. 많게는 50만 원까지 줄 테니 써버리라고 한다. 《나라가 빛을 내어 줄 테니,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말은 숨겨져 있다. 《빛 권하는 사회》 아니 《빛 권하는 정부》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17년 《나랏빛(국가채무)》은 660조. 정권 끝난 2022년엔 1,067조. 문재인은 건국 후 70년 간 누적된 《나랏빛》을 단 5년 만에 두 배로 만들었다. 거의 매년 100조씩 《나랏빛》을 늘렸다

소비쿠폰을 위해 또 《20조 빛》을 냈다. 기재부는 내년이 가기 전에 《나랏빛》이 1,3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나랏빛》이자로만 연간 25조, 매일 680억이 나간다.

15만원 받아 소고기 잔치?

《나랏빛》폭증인데 또 《빛》 내어 소고기 한번 시원하게 사드시라고 권하고, 어머니는 “재명이 아들 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 수준?

그렇지 않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나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인식 조사〉에서 “소비쿠폰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된다. 소비쿠폰은 정부가 《빛

을 내서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책이 계속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공짜 돈을 원할 것 같다.”에 동의한 2030 세대가 65%를 넘었다.

세대별 차이가 크다. 2030이 큰 우려를 보였다. 반면 50대는 정반대다.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은 51.5%. 《빛으로 주는 용돈》에 대해서는 48.5%. 《공짜 돈 바라기》에 대해서는 48.5%가 동의했다. 자녀들이 갚아야 할 빛에 대해 부모가 《괜찮아》라고 하고 있다.

빛잔치 권하는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

우리는 1907년 나라를 지키려고 〈국채보상운동〉을, 1997년 IMF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이제 《빛으로 잔치를 권하는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칼 포퍼는 명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인류 역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1948년 건국 이후 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거쳐 우리는 칼 포퍼가 말한 열린 사회로 진화해 왔다. 〈국민재단 빛 설립 운동〉이 그런 진화의 한 예이다.

모금 2주만에 10억이 훌쩍 넘는 출연금이 모였다. ※100원 된 아가까지 가족 모두 출연 ※15만 원 보내고 1,500만 원 쓴 것만큼 기분 좋다는 분 ※《소비쿠폰 빛 NO...》라는 광고문 붙인 식당 사장님 ※하루 벌이 먹고 사는 국민이라고 밝힌 분 ※월남전 참전 팔십 넘은 노병 ※프리랜서인데 불경기가라 수입이 적지만 빛 갖는 데 참여하고 싶어 소액이라도 보낸다는 분 ※무더위에 은행 찾아 출연금 보낸 어른들. 가슴이 저려온다.

좌파 재단은 우후죽순, 우파는?

모금 첫날 100인의 출연자로 이문열 작가, 전 국회의부의 장 박주선, 윤상현-김민전 국회의원 등이 동참했다. 특히, 이문열 작가는 “이렇게 단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은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며 상임고문직을 수락, 운동에 큰 힘을 보탤다.

《빛 권하는 정부 / 미래세대에 빛을 떠넘기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빛이 아닌 빛을 모아 세우고 있는 이 운동》은 8월 4일 재단 설립 신청에 들어간다.

박원순이 만든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등 좌파 재단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열린 사회》나 《깨어있는 시민》이니 온갖 변듯한 말은 다 가져다 쓰는 이 정권이, 이 운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볼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건국 때부터 현행 9차 헌법에 이르기까지 전문(前文)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오늘 당장만이 아니라 “영원히 확보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오늘의 빛을 내일의 빛으로 바꾸는 《국민재단 빛 설립 운동》이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쓸 날을 꿈꾼다.

도태우 〈국민재단 빛〉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 변호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8월 3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69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